태극낭자들 LPGA투어 우승사냥 나선다

17일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대거 출격

한국 여자골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4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 여자골프 선수들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와일드파이어 골프클럽(파72·6679)에서 펼쳐지는 LPGA 투어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총상금 150만 달러)에 대거 출격해 우승 사냥에 나선다. 이번 대회는 올 시즌 첫 미국 본토에서 열리는 경기다.

개막전 '바하마 클래식'을 포함해 4개 대회 모두 호주와 태국, 싱가포르 등 미국 이외 지역에서 열렸다.

파운더스컵을 시작으로 다음주 'KIA 클래식'에 이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까지 3주 연속 대회가 이어진다.

세계 톱랭커들이 총 출동해 미국 현지 적응에 나선다.

세계랭킹 톱10에 이름을 올린 선수 중 3위 펑산산(중국)을 제외하고 전원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의 간판 선수들도 총출동한다.

지난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우승하며 부상 복귀 후 2주 만에 우승을 맛본 '골프여제' 박인비(29·KB금융그룹)는 절정의 퍼트감과 함께 2개 대회 연속 우승 사냥에 나선다.

복귀와 함께 메이저 타이틀 획득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은 박인비는 ANA 인스퍼레이션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파운더스컵에서부터 현지 적응은 물론 컨디션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LPGA 회원 자격으로 치른 데뷔전에서 3위에 오르며 '슈퍼 루키' 다운 기량을 과시한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두 번째 대회에 나선다.

HSBC 위민스를 통해 다소 늦은 데뷔전을 가졌지만 나흘 연속 68타를 치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량을 선보였다.

대회 최종일에는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 US오픈 챔피언 미셸 위(미국)와 함께 챔피언조에서 경기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디펜딩 챔피언' 김세영(24·미래에셋)은 시즌 첫 승과 함께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김세영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27언더파 261타를 기록, 여자골프 전설 아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갖고 있는 72홀 최다 언더파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이미 시즌 첫 승을 따낸 장하나(25·BC카드)와 양희영(28·PNS 창호)은 다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신인왕 전인지(23)와 2015년 이 대회 우승자 김효주(22·롯데)도 우승을 노린다.

'슈퍼 루키' 다운 기량을 과시한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두 번째 대회에 나선다.

지난해 이 대회 준우승에 그쳤던 리디아 고는 한국 선수들의 우승 전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클럽, 스폰서, 캐디, 코치까지 다 바꾼 그는 첫 출격한 호주여자오픈에서 공동 46위에 머물렀지만 최근 두 대회 연속 톱10에 이름을 올리며 적응을 마쳤다.

세계 랭킹 2위 에리야 쭈타누깐(태국)도 시즌 첫 승을 거두겠다는 목표다. 개막전 공동 47위로 부진했지만 이후 3개 대회에서 준우승과 공동 3위 포함 모두 톱10에 들었다.

개막전 우승자 브리타니 린시컴을 비롯해 렉시 톰슨, 스테이시 루이스(이상 미국)는 물론 브룩 헨더슨(캐나다)과 유럽 강자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 등도 우승 경쟁을 벌인다.

/김민근기자

'22년만의 방한' 마라도나… "감회가 새롭다"

오늘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본선 조추첨식 참석

14일 오전 아르헨티나 축구영웅 디에고 마라도나와 파블로 아이마르가 수원 화성 행궁 광장에 발을 내딛었다.

두 축구 영웅이 모습을 드러내자 이날 이곳을 찾은 약 300명의 축구팬들은 환호와 박수로 환영 인사를 건넸다.

다소 쌀쌀한 날씨였지만 마라도나도 자신들을 환영해준 팬들을 위해 손을 흔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마라도나의 방한은 22년만이다. 지난 1995년 보카 주니어스 소속으로 한국을 찾은 게 마지막이었다.

마라도나는 오늘 수원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본선 조추첨식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방한했다.

방한 후 첫 일정으로 '레전드 매치' 행사에 참석했다.

레전드 매치는 팀 마라도나와 팀 아이마르의 대결로 펼쳐졌다.

경기를 위해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마라도나는 경기전 "한국팬들이 대회가 열리는 이곳에 많이 와주셨다. 감회가 새롭다"며 소감을 전했다.

쌀쌀한 날씨에 당황한 듯 연신 몸을 비벼댄 마라도나는 경기가 시작되자 진지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했다.

골에 대한 욕심도 여전했다. 경기 내내 "볼을 달라"며 소리를 쳤고 과장된 몸짓으로 반칙을 유도하기도 했다. 예전 같은 몸놀림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장점인 왼발 슛과 드리블 등은 여전했다.

특히 골을 성공시킨 후에는 카메라를 향해 세리모니를 펼쳐보이며 관중들의 박수를 유도했다. 마라도나는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누구보다 기뻐했다.

마라도나와 함께 행사에 참석한 아이마르 역시 세계적인 스타임을 보여줬다. 아이마르는 경기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경기에 임했다.

경기 후에도 의미 있는 시간은 계속됐다. 두 선수는 소외 계층 아동을 돕기 위한 '슛포러브 챌린지'에도 참여했다.

이번 대결 역시 팀 마라도나가 팀 아이마르를 139-123으로 눌렀다. 팀 마라도나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초청권 50장을 기부한다.

이날 행사를 마친 마라도나와 아이마르는 15일 수원 SK아트리움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조 추첨식 일정에 참석한다.

/김민근기자

무주덕유산CC 휴장기 마치고 오늘부터 개장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무주덕유산CC(대표 이길범)가 겨울 휴장기를 마치고 오늘 2017년 시즌을 개장한다.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대자연 속 해발 900m의 고지에 자리하고 있는 청정야생고원 무주덕유산CC는 생동감 넘치는 대자연의 아름다움까지 만끽할 수 있도록 골프의 황제 아놀드 파머가 심혈을 기울여 설계했다.

18홀의 코스(인코스 파36, 야드 3,251 / 아웃코스 파36, 야드 3,472)는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자생식물과 기암들을 그대로 보존하며 청정 고원골프장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과감한 도전의식과 세심한 전략성을 요구하는 수준 높은 환상적인 코스로 설계 되어 있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간직하며 거대한 덕유산 자락에서 전해오는 아늑함과 울창한 소나무의 청정한 공기를 마음껏 호흡하며 삼림욕을 함께 즐기는 일석이조의 라운드가 가능하며, 특히 한여름에는 시원하고 쾌적한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다.

/무주=전문선기자

전북체육회, 어르신 건강 도우미 사업 전개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 조성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사업을 펼친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어르신 야외체력관리 교실'은 고령화 시대 노인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사업을 8개 시군 9개소에서 운영한다.

또한 도내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운동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인 '어르신운동용품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해 도내 122개소에 좌식자전거, 벨트마사지기 등의 운동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노년생활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보급해 도민건강 100세 시대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U-18 여자배구대표팀, 아시아대회 3위

한국 U-18 여자배구가 2017 제11회 아시아유스여자(U-18) 배구선수권대회에서 3위에 올랐다.

한국은 13일 중국 충칭에서 열린 대회 3~4위전에서 태국을 3-0(25-17 25-17 28-26)으로 제압했다.

한국은 준결승에서 중국에 2-3(25-19 25-14 23-25 19-25 13-15)으로 졌지만 태국을 넘고 유종의 미를 거뒀다.

한국은 1세트를 가볍게 따내며 기선을 제압했다. 2세트에서는 심미옥의 서브 에이스와 이주아의 활약을 앞세워 세트스코어 2-0을 만들었다.

경기는 3세트에서 마무리 됐다. 11-16으로 끌려가던 한국은 이윤주의 연속 서브 에이스로 21-20 역전에 성공했다. 26-26 듀스에서는 이주아의 블로킹으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민근 기자